

이 그림은 어떤 연유로 이 공간에 머물게 되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그림의 운명

이명 지음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초기 제목이 '아비뇽의 사창가'였다.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사창가가 그림의 모티브였다. 처음 그림이 전시될 때인 1916년, 기획자는 '아비뇽의 아가씨들'로 제목을 바꿨다.

관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전의 피카소 그림과 다른 방식과 느낌 때문이었다. 누드가 새로운 형식도 아닌데 다른 게 있다면 '피카소가 대상을 그린 방법과 태도'였는데 '마치 인체를 해부하듯 부분을 해체한 뒤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어붙인 듯 각각의 특징을 따로따로 포착하고 이를 재조합하여 전체를 보여주는' 관점이 흥미로웠다.

이전의 그림들은 재현에 포커스를 뒀다면 피카소는 대상의 외면을 파괴하고 '내면을 파헤치는 놀라운 효과'를 염두했다. 그림 속 여인들의 표정을 자세히 읽을 수는 없다. 그림에도 기형적인 이목구



비, 노골적인 육체의 모습은 인간의 고통과 반발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그림에는 특유의 운명이 있다. 비단 그림뿐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도 나름의 운명을 타고 난다.

세기의 걸작들이 어떻게 특정 공간에 머물게 되었는지 분석한 책이 나왔다. '그림의 운명'은 작업실을 떠나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채 여러 곳으로 보내졌던 그림의 운명을 주목한다. 저자는 국민일보 문화부에서 근무했던 이명 씨. 서울대에서 영어교 육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미술관에 놓인 그림들의 사연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구입한 이는 아트 컬렉터인 자크 두세다. 피카소 친구이자 평론가 앙드레 브로통이 '그림을 초월하는 그림'이라고 극찬을 했다. 이와 달리 피카소는 상당히 낮은 금액에 작품을 팔았는데, 그것은 두세가 자신의 사후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세는 유언장에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작품은 밀러를 통해 이곳저곳으로 팔려 나갔다. 그림에도 그 작품은 어딘가에 정착할 운명인 모양이다.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1929년 뉴욕 현대미술관

개관 이후 첫 번째 구입한 작품이 된다. 오늘날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술과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높이며 서로가 보완한 최고의 결합"으로 평가받는다.

마네가 여인의 누드를 그린 '폴밭 위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도 초기에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1863년 마네는 '폴밭 위의 점심식사'를 '살롱'에 출품하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후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최한 '낙선전'에 마네는 작품을 출품하지만 평가를 바꿀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올랭피아를 살롱에 출품했지만 역시 거센 공격과 비난을 받기에 이른다.

마네는 스스로 걸작이라 생각했지만 대중은 달랐다. 그의 사후 추앙하고 따르던 모네 등 일련의 화가들이 '올랭피아'가 루브르에 걸릴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폴밭 위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가 그곳에 걸리게 된다. 폐쇄된 철도역을 개조해 만든 오르세미술관 소장작이 되면서 마네의 그림은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에 이른다.

르네상스의 거장 다 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그의 조국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에 남겨졌다. 노년의 다 빈치가 고국을 떠나 죽기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프랑스 왕의 관심과 지지 때문이었다.

이밖에 현존하는 조각상을 뛰어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생전에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랑을 받는 고흐의 작품, 세계평화를 기원한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감상하는 관람객들.

모네가 일본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된 사연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화가 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서, 또 그림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겼다고 해서 화가와 그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화가의 손을

떠난 그림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평가되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 비로소 그림 자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미술문화> 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

진 트랜지 지음, 이정민 옮김

일반적으로 세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물론 부모 시대와 자녀 시대가 차이를 지니는 대략 30년의 기간을 세대라고 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6개의 세대가 상존한다. 사일런트 세대(1925-1945), 베이비붐 세대(1946-1964), X세대(1965-1979), 밀레니얼 세대(1980-1994), Z세대(1995-2012), 알파 세대(2013-2029)가 그것이다.

세대 변화를 조명한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는 동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여섯 세대의 특징을 조명한다. 저자는 샌디에이고주립대 심리학과 진 트랜지 교수로 그는 '나 세대' 등 세대 관련 다양한 책을 펴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미국 아마존 이달의 책 선정, 미국 아마존 분야 1위에 뽑힐 만큼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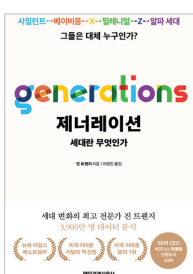
100년 전과 지금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패턴은 지금과 달랐다. 당시에는 빨래나 요리 같은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지금은 앱을 활용해 언제든 요리를 배달 시키고, 세탁기에 옷가지를 넣고 40분간 TV를 보고 있으면 된다.

또한 1930년대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끝으로 스무살에 결혼해 25세까지 출산과 육아를 했지만 1990년대 여성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25살이 돼도 결혼도 하지 않는다.

저자는 세대의 특징은 기술혁신이라는 근본원인과 개인주의, 슬로우라이프(느린 인생주기)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한다.

<매일경제신문사> 2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은 식물

김선곤 지음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식물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은은한 향기로, 화려한 꽃으로, 초록의 생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기를 불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마음으로 식물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꽃 읽어주는 남자'의 식물 에세이 '오늘은 식물'이 출간됐다.

매일 식물 생각만 하는 플랜테리어 식물 전문가인 김선곤 작가는 유튜브에서 '꽃 읽어 주는 남자' 일명 '꽃 읽남'으로 활동 중이다. 아내와 함께 플라워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결심하고 플라워스튜디오를 연 이야기부터 매장을 운영하는 이야기, 꽃과 식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한 생각, 식물을 키우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예비 식물 집사나 초보 집사들을 위해 식물을 들이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전해주며 식물을 인테리어 도구가 아닌 생명을 가진 반려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을 강조한다.

식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자의 글 중 가장 공감되는 글귀가 있다.

"재배 방식에 정답은 없다. 물에서 키우느냐, 흙에서 키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려식물에 얼마만큼 관심과 사랑을 쏟느냐가 식물의 상태를 결정한다. 흙시 반려식물을 들이려 한다면, 어디에서 키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드림데이> 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세상 모든 것의 물질

수지 시히 지음, 노승영 옮김

원자의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쿼크 등은 물질의 근본이 되는 소립자다. 이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는다. 물리학을 통한 귀납적·과학적 증명을 거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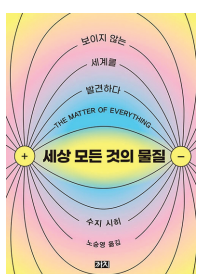
소립자 연구에 중심이 된 것은 실험물리학자들이다. 이들은 1900년대 초반에 경쟁적으로 방사선, 우주선, 인공 방사능 연구 등을 연구했는데, 이전까지 물리학 연구가 이론물리학에 편중됐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실험물리학자들은 3세대 입자의 수수께끼까지 풀어 나가면서 인류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 왔다.

실험물리학의 진전을 다룬 책이 나왔다. 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수지 시히의 '세상 모든 것의 물질'은 저자가 옥스퍼드대, 맥마스터대에서 입자 가속기를 개발하며 쌓인 노하우를 풀어낸다.

책은 입자 가속기가 점차 '선형 가속기', '테바트론(빔의 속도를 테라 규모까지 올리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발전해 온 발전사에 주목한다. 2억5000만 달러 예산이 들었던 입자가속기 사업을 승인받았던 비화, 20년간 방치된 중성미자 실험 당시 방사선을 막으려 파라핀납으로 직접 벽돌을 만들었던 이야기 등 과학자들의 노력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25년간의 공사 끝에 만든 대형 강입자충돌기(CERN)의 개발과 이로 인한 2012년 힉스 보손의 발견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과학이 개인이 나 단계를 넘어 초국가적 합동 연구를 통해서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19세기 말 X선의 발견이라는 경이로운 이야기부터, 과학이 나아 온 극단까지를 살펴본다. 비교적 생소한 물리학 개념들인 음극선관과 광전 효과, 금박 실험, 싱크로트론 등도 쉽게 풀어낸다.



<가치> 2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동행요양병원
062) 720-2000